광산농악전수교육관 애물단지 위기

21억여원 들여 지난해 6월 개관
부대시설 없고 접근성 떨어져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실상 방치
매년 1억원 안팎 운영비만 낭비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둥지를 튼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이 지난해 6월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 광산구가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관한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개관 1년 6개월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 제8 호인 광산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비 10 억원과 시·구비 등 총 21 억 1200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6 월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을 개관했다.

광산구 산정동에 둥지를 튼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은 전수교육 조교와 광산농악보존회원 등 50여명을 상주 또는 입주시켜 전통농악을 전승하기 위한 연습 및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축 과정에서 다수 인원이 함께 참여하는 농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전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마저 거치지 않아 개관 이후 시설 이용에 각종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악의 경우 합숙 교육·연습 등이 많은 특성상 숙박시설을 갖춘 부대시설이 필수적인데도, 신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교육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 등도 쏟아지고 있다.

불편한 접근성도 교육관 활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구 진입로가 협소하고 대중교통마저 두절된 곳에 위치한데다, 기본적인 안내간판 조차 없어 교육관을 방문하는 외지 농악인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문제점이 겹치면서 광산농악보존회 등에선 관리위탁 의사를 적극 피력하지 않았고, 광산구는 결국 해당 농악 단체에 교육관 위탁을 포기하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3 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개관 당시 광산농악보존회가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는 결국 관리운영 능력도 없는 광산농악보존회의 농악전수 공간 마련을 위해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인 셈이다.

운영 관리를 맡을 농악단체의 주체가 모호해지면서 교육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 차례나 교육관을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진 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광산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개관한 교육관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도, 매년 1억원 안팎의 구민혈세를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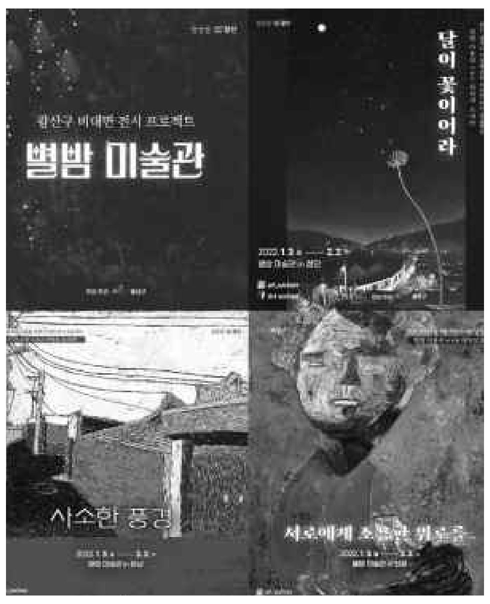
광산구는 지난해 해당 교육관 운영 관리비용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 월 예능보유자인 정득채 선생이 작고하고 코로나 19 까지 겹쳐 소극적으로 운영됐었다"며 "향후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교육관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별밤 미술관, 새해 희망과 온기 전한다

광산구 5개 미술관 신년 기획전
매일 오후 6시~12시 무료 관람



예술로 저녁 시간을 물들이는 광산구 별밤 미술관이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를 담은 전시로 광산구민을 만난다.

광산구는 "지난 3일부터 2월 2일까지 5개 별밤 미술관이 주제별 전시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전시인 만큼 희망과 행복, 사람 사는 풍경이 주는 따스함 등의 주제가 눈에 띈다.

별밤 미술관 in 첨단에선 꽃이 된 달을 통해 행복 가득한 시간을 기원하는 김성대 작가의 '달이 꽃이어라' 전시가 펼쳐진다.

수완 별밤 미술관은 박희정 작가의 '바나나 바나나' 전시를 연다. 바나나로 크고 작은 희망을 표현한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선운지구 근린공원에 있는 별밤 미술관은 사람들의 흔적이 축적된 골목길의 따듯함, 편안함을 표현한 노여운 작가의 '기억:풍경' 전이 진행된다.

신창 미술관에서는 배일섭 작가가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를..'이란 주제로 시대정신을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운남 별밤 미술관에서는 서영실 작가 의 '사소한 풍경'을 주제로 문명이 들어선 이후 번성하고 쇠락한 도심의 모습을 조명한 작품이 전시된다.

별밤 미술관 전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062-960-3688)로 문의하면 된다./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민선7기 광산구, 전국 최고 자치역량 '우뚝'

대통령상 4관왕 등 184건 수상
공모 380건 선정 등 눈부신 성과

광주 광산구가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각종 수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중앙부처를 포함한 각종 외부 평가에서 수상 행렬이 이어지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민선 7기 수상 실적은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안전문화대상과 옥외광고물 업무유공 대통령상을 시작으로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연달아 대통령상을 받는 등 '대통령상 4관왕'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은 늘행복 프로젝트는 2019년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생활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주거, 일자리, 의료, 공동체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주민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는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함에도 가족 돌봄이 어려운 건강약자를 위한 동행서비스인 '휴블런스'도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복지 안전망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으며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골목경제에서도 광산구의 선도적 정책은 존재감을 발휘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산경제백신회의,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함께 추진한 1% 희망대출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자영업자 역량강화, 상인회 결성 등 자생력을 키우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상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 선정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산밀 소비확대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행정안전부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2관왕(대상·최우수상),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광산구는 우수한 자치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수상과 더불어 38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1139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민선 7기 광산구가 이룬 모든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42만 광산시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으고 협력한 결과물"이라면서 "전국에서 인정받은 광산구의 혁신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행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공원 조성 추진

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출범
6월 장군 흉상 건립 목표

지난해 12월30일 열린 홍범도공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정신을 새긴 공원과 흉상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홍범도공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산구 고려인미디어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월곡동 주민이자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 홍우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지자체, 시·구의원, 지역주민, 고려인마을 주민 등 관계 인사와 해외 카자흐스탄 한인회 대표 등이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1994년 장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남북한의 외교전이 극심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 묘역을 관리했던 장원창 전 사할린 한국교육원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진위는 오는 6월 고려인마을이 있는 월곡2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 홍범도 장군 공원을 만들고, 장군 흉상을 세우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가운데, 항일투쟁에 앞장선 고려인 후손이 모여 사는 곳에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월곡고려인문화관'을 개관, 강제이주, 항일투쟁 등 고려인의 역사와 삶, 문화,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8월 15일에는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한 특별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공개하며,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 공원은 고려인문화관과 함께 월곡동과 고려인마을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탐방 명소로 만드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광산구는 홍범도 장군이 태어난 평양, 독립투쟁을 한 간도와 연해주 일대, 후손을 돌보고 가르쳤던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유해가 잠든 대전 유성구에 이은 '여섯 번째 고향'이 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은 "홍범도 장군 공원과 함께 고려인마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교육의 명소이자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랜드마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월곡동은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독립투사의 후손인 고려인이 이주해 오면서 고려인마을이 형성됐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현재는 5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